

의약품 지출 비용에 미치는 영향 요인 – 한국의료패널자료를 활용하여

Factors Affecting Medicines Expenditure Costs – Using Korean Medical Panel Data

김윤정*, 황병덕**

프라우메디병원*, 부산가톨릭대학교 병원경영학과**

Yun-Jeong Kim(kkam0201@nate.com)*, Byung-Deog Hwang(suamsam@cup.ac.kr)**

요약

본 연구는 의약품 지출 비용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의료패널조사의 2014년 원자료를 분석자료로 이용하여, 의약품 지출 비용이 있는 자 3,107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은 빈도분석, 교차분석, 회귀분석 및 t-test를 실시하였고, 모든 검증은 p=.05를 유의수준으로 하였다. 처방전 비용은 72.4%가 지출 경험이 있었고, 최소 비용은 84원, 최대 비용은 270,653원 이었고, '3천원 이상~1만원 이하'가 31.7%로 가장 많았다. 일반의약품 비용은 81.8%가 지출 경험이 있었고, 최소 비용은 800원, 최대 비용은 2,718,000원 이었고, '2만원 이하'가 31.4%로 가장 많았다. 한약 및 첩약 비용은 9.4%가 지출 경험이 있었고, 최소 비용은 4,000원, 최대 비용은 2,700,000원 이었고, '10만원 초과'가 37.8%로 가장 많았다. 의약품 지출 총 비용은 최소 비용은 84원, 최대 비용은 2,760,093원 이었고, '10만원 초과'가 27.0%로 가장 많았다. 의약품 지출비용에 미치는 요인은 성별, 혼인상태, 소득분위, 지역권, 주관적 건강상태 이었다.

■ 중심어 : | 의약품 비용 | 소득분위 | 주관적 건강상태 | 지역권 |

Abstract

This study used raw data from the Korea Medical Panel Survey for 2014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cost of medicine expenditure. A total of 3,107 people with medical expenses were selected for the final analysis. Analysis methods were frequency analysis, crossover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and t-test. The significance level of all tests was p = .05.

The prescription cost was 72.4%, the minimum cost was 84 won, the maximum cost was 270,653 won, and the highest amount was 'over 3,000 won~less than 10,000 won' (31.7%). The general pharmaceuticals cost was 81.8%, the minimum cost was 800 won, the maximum cost was 2,718,000 won, and the highest amount was 'less than 20,000 won' (31.4%). The herbal medicine cost was 9.4%, the minimum cost was 4,000 won, the maximum cost was 2,700,000 won, and the highest amount was 'over 100,000 won' (37.8%). The medicines expenditure was the maximum cost was 2,760,093 won, and the highest amount was 'over 100,000 won' (27.0%). Factors affecting medicine expenditure were gender, marital status, income quintile, easement,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 keyword : | Medicine Expenses | Income Quintile | Subjective Health Status | Easement |

1. 서론

우리나라는 1977년 의료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의 법제화 그리고 1989년 전국민 의료보장체계의 구축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장함으로써 삶의 질은 향상되었으나, 급격한 의료비 증가라는 새로운 문제가 나타났다 [1].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 의료비 지출규모는 OECD국가보다 높은 편은 아니지만, 계속되는 증가 추세를 고려해 볼 때 선진국들의 심각한 문제인 높은 의료비 지출 비중이 우리나라에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적인 의료비의 증가는 의료비가 사회적 수준에서 부담이 가능한가의 사회적 문제와 의료비에 대한 재원조달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의 정책적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다.

공적 의료보장제도를 통한 적절한 급여 수준이 정해지고, 일부를 환자가 부담하게 되는 의료비용은 동일한 금액의 환자본인부담금이라도 소득에 따른 그 부담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2].

이러한 본인부담금의 부담 정도는 피보험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더라도 그로 인한 경제적 위험을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는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3].

가구의 의료비부담 정도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의료비의 절대적 크기도 중요하지만 가구의 부담능력을 고려한 평가가 더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국·내외에서 활용되고 있는 과부담 의료비 지출 경험 가구를 파악하는 것은 의료접근성을 저해하는 경제적 장벽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과부담 의료비(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는 소득에 비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비중이 과한 경우를 뜻한다.

또한 의료보장제도의 목적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가 의료이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의료의 필요에 대한 충족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경제적 부담 뿐 아니라,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의 부족, 시간적 제약 또는 정보의 부족 등 다양한 요인이 필요한 의료 이용의 장애 요인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포함된 복합적인 결과를 의미하는

미충족 의료 현황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취약한 보장성을 고려할 때 경제적 부담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예상된다[4]. 그러므로 정부는 급증하는 의료비 지출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가중되는 것에 대비하여, 국가 재정 및 보건 의료 재정의 지속성·건전성·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 개발이 시급하고, 의료비 지출이 효율성·효과성·형평성에 맞는 관리 정책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의료비 지출 양상과 패턴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요구되고 있는 실정므로 이는 바람직한 보건 의료체계의 확립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5].

보건 의료체계는 의료기관, 의료인력,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 눈에 보이는 자원뿐 아니라 이들을 이용하고 제공하도록 하는 시스템과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관리하는 체계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보건 의료체계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기본적인 목표 추구 뿐 아니라, 질병이나 의료이용으로 인해 구성원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6].

이에 가계소비지출 중 가계 의료비 지출에 초점을 맞추어 그 영향 요인을 살펴본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창순[7]은 2002년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보건 의료비를 세부 비목별로 나누어 보건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의료서비스 비용은 가계지출과 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지출이 증가하였으며, 가구주의 직업이 자영업인 가구가 생산적인 가구보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전문대 이상과 중학교 이하인 가구가 고등학교 졸업인 가구보다 지출 수준이 높았다. 반면, 맞벌이가구인 경우가 일반가구에 비해, 가구주가 여성인 가구가 남성인 가구에 비해 지출 수준이 낮았다. '의약품비'는 가계지출, 가구주의 연령, 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지출이 증가하였으며, 가구주의 직업이 자영업 또는 무직인 가구가 생산적인 가구보다 지출이 높았다. 반면, 가구유형이 맞벌이가구인 경우 일반가구보다, 가구주의 성이 여성인 가구가 남성인 가구보다 지출이 낮았다. 의료용품기구는 비용은 가계지출과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출이 증가하였으며, 가구주의 직업이 사무직과 자영

업인 가구가 생산적인 가구보다 지출이 높았으며, 이상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허순임·최숙재[8]는 2000년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가구소득은 의료비 지출과 유의한 정(+)의 관계에 있음을 밝혔다.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의료비 지출이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 가구 내 취업인원수가 많을수록 의료비 지출은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가구주의 성별이 남성인 경우가 여성인 경우보다 의료비 지출이 높았고,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전문대 이상인 경우가 중학교 이하인 경우보다 의료비 지출이 높았다.

이혜재·이태진[9]은 한국의료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미충족 의료와 비급여 진료비가 과부담 의료비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가구 중 과부담 의료비를 지출한 가구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미충족 의료는 과부담 의료비 발생 확률을 높였고, 비급여 진료비는 과부담 의료비 발생 확률을 높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과부담 의료비나 미충족 의료비,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만 부각될 뿐 뒷받침 되어야 할 의료비 지출 비용에 관한 세부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행태에 따른 의료비 지출 비용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미충족 또는 과부담 의료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한국의료패널조사(Korea Health Panel Study)의 2014년 한국의료패널 원자료(Raw Data)를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의약품 지출 비용을 알아보기 위해 처방전 약제비, 일반의약품 약제비, 한약 및 첩약 약제비 이용 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건강기능식품, 안경 및 콘택트렌즈, 의료기기 구매·임대·수리 비용을 제외한 총 3,107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 측정변수

2.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령은 '40세 이하', '41세-64세', '65세 이상'으로 분류하였고, 혼인상태는 혼인 중인 상태를 '유지', 사별·이혼·별거·미혼 상태를 '종결 및 미혼'으로 분류하였다. 교육수준은 최종 졸업 학력을 중심으로 '초등 이하', '중학 이하', '고등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2.2 소득분위

한국의료패널조사에서 가구 내 실제 가구원 수의 계급근으로 나누어 최소 1분위에서 최대 5분위로 구분한 5분위 소득을 기준으로 하였다.

2.3 지역권

한국의료패널에서 조사한 행정도구역을 4개 지역권으로 분류하였다.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는 '수도권', 대전광역시·충청북도·충청남도·세종시·강원도는 '충청권', 광주광역시·전라북도·전라남도·제주도는 '전라권',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북도·경상남도는 '경상권'으로 분류하였다.

2.4 건강행태

주관적 건강상태는 의료패널 조사 시 측정한 5점 척도를 3점 척도로 변경하여 '좋음', '보통', '나쁨'으로 분류하였다. 장애는 장애를 가진 경우를 '예',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를 '아니오'로 분류하였다. 만성질환은 의사진단을 받은 경우를 '예', 받지 않은 경우를 '아니오'로 분류하였다. 흡연은 흡연 경험이 1회 이상 있는 경우를 '예', 경험이 없는 경우를 '아니오'로 분류하였다. 음주는 음주 경험이 1회 이상 있는 경우를 '예', 평생 마시지 않은 경우를 '아니오'로 분류하였다.

2.5 의약품 비용

원내에서 사용한 약제비를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직접 구매한 비용은 '처방전 비용', 약국에서 일반의약품 구매와 의약품 구매 비용은 '일반의약품 비용', 약국에서 한약구매와 한약방에

서 한약구매 그리고 시장에서의 견재·첩약 구매 비용은 ‘한약 및 첩약 비용’으로 분류하였다. 단, 의료기관 내 구매·건강기능식품·안경 및 콘택트렌즈·의료기기 구매·임대·수리 비용은 제외하였다.

3. 분석방법

자료분석은 SPSS 24.0을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하였고, 건강행태와 의약품 지출 비용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의약품 지출 비용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검정은 $p=.05$ 를 유의수준으로 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처방전 비용

처방전 비용은 ‘있음’이 72.4%이었다. 연령($p<.001$), 성별($p<.01$), 혼인상태($p<.05$), 교육수준($p<.001$), 소득분위($p<.001$), 주관적 건강상태($p<.01$), 장애 유무($p<.005$), 만성질환 유무($p<.001$), 흡연 유무($p<.05$), 음주 유무($p<.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처방전 약제비용은 ‘3천원 초과~1만원 이하’가 31.7%로 가장 많았다. 최소 비용은 ‘84원’ 이었고, 최대 비용은 ‘270,653원’ 이었다. 처방약 비용은 연령($p<.001$), 교육수준($p<.05$), 소득분위($p<.001$), 주관적 건강상태($p<.001$), 장애 유무($p<.001$), 만성질환 유무($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1].

2. 일반의약품 비용

일반의약품 비용은 ‘있음’이 ‘81.8%’ 이었다. 연령($p<.001$), 성별($p<.005$), 혼인상태($p<.001$), 교육수준($p<.001$), 소득분위($p<.001$), 지역권($p<.05$), 장애 유무($p<.001$), 만성질환 유무($p<.001$), 흡연 유무($p<.1$), 음주 유무($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일반의약품 약제비용은 ‘2만원 이하’가 31.4%로 가장 많았다. 최소 비용은 ‘800원’ 이었고, 최대 비용은

‘2,718,000원’ 이었다. 일반의약품 비용은 성별($p<.1$), 혼인상태($p<.01$), 소득분위($p<.05$), 주관적 건강상태($p<.005$), 흡연 유무($p<.05$), 음주 유무($p<.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2].

3. 한약 및 첩약 비용

한약 및 첩약 비용은 없는 경우가 90.6% 이었다. 연령($p<.05$), 성별($p<.005$), 혼인상태($p<.001$), 교육수준($p<.05$), 소득분위($p<.001$), 주관적 건강상태($p<.05$), 만성질환 유무($p<.001$), 음주 유무($p<.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한약 및 첩약 비용은 ‘10만원 초과’가 37.8%로 가장 많았다. 최소 비용은 ‘4,000원’이었고, 최대 비용은 ‘2,700,000원’ 이었다. 지역권($p<.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3].

4. 의약품 지출비용

의약품 지출 비용은 ‘10만원 초과’가 27.0%로 가장 많았다. 최소 비용은 ‘84원’ 이었고, 최대 비용은 ‘2,760,093원’ 이었다. 성별($p<.05$), 혼인상태($p<.001$), 소득분위($p<.001$), 지역권($p<.001$), 주관적 건강상태($p<.05$), 흡연 유무($p<.05$), 음주 유무($p<.0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4].

5. 의약품 지출 비용에 미치는 요인

의약품 지출 비용이 ‘1만원 이하’는 남성보다 여성이 1.465배 높았고, ‘혼인 종결 및 미혼’이 ‘혼인 유지’보다 0.563배 낮았다. ‘1만원 초과~3만원 이하’는 소득분위 ‘1분위’보다 ‘2분위’는 1.455배, ‘3분위’는 1.117배, ‘4분위’는 1.650배 그리고 ‘5분위’는 1.333배 높았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 좋음’보다 ‘보통’이 1.388배, ‘나쁨’이 1.334배 높았다. ‘3만원 초과~5만원 이하’는 교육수준이 ‘초등 졸업’보다 ‘중등 졸업’이 0.735배 낮았다. 지역권은 ‘수도권’보다 ‘충청권’은 0.730배 낮았다. ‘5만원 초과~10만원 이하’는 혼인상태 ‘유지’보다 ‘종결 및 미혼’이 1.525배 높았고, 지역권은 ‘수도권’보다 ‘충청권’은 1.523배, ‘전라권’은 1.407배 그리고 ‘경상권’은 1.370배 높았다. ‘10만원 초과’는 혼인상태 ‘유지’보다 ‘종결 및 미혼’이

표 1. 처방전 비용

단위: 명(%), 원

변수	무	유	처방전 비용				MIN	MAX	
			≤3,000	≤10,000	≤20,000	20,000<			
연령	40세 이하	45(46.4)	52(53.6)	21(40.4)	28(53.8)	3(5.8)	-	84	19,993
	41-64세	438(35.2)	808(64.8)	256(31.7)	306(37.9)	124(15.3)	122(15.1)	84	215,793
	65세 이상	376(21.3)	1,388(78.7)	391(28.2)	378(27.2)	289(20.8)	330(23.8)	84	270,653
	F(p)	87.482(.000)		73.432(.000)					
성별	남	626(29.1)	1,526(70.9)	433(28.4)	494(32.4)	276(18.1)	323(21.2)	84	215,793
	여	233(24.4)	722(75.6)	235(32.5)	218(30.2)	140(19.4)	129(17.9)	84	270,653
	X ² (p)	7.278(.007)		6.711(.082)					
혼인 상태	혼인 유지	596(28.8)	1,475(71.2)	418(28.3)	482(32.7)	271(18.4)	304(20.6)	84	215,793
	중결 및 미혼	263(25.4)	773(74.6)	250(32.3)	230(29.8)	145(18.8)	148(19.1)	84	270,653
	X ² (p)	3.973(.046)		4.685(.196)					
교육 수준	초등	252(22.7)	856(77.3)	272(31.8)	239(27.9)	162(18.9)	183(21.4)	84	270,653
	중등	135(24.1)	425(75.9)	110(25.9)	136(32.0)	81(19.1)	98(23.1)	84	143,393
	고등이상	472(32.8)	967(67.2)	286(29.6)	337(34.9)	173(17.9)	171(17.7)	84	215,793
	F(p)	35.931(.000)		15.936(.014)					
소득 분위	1분위	168(19.8)	681(80.2)	255(37.4)	174(25.6)	115(16.9)	137(20.1)	84	192,893
	2분위	213(29.1)	518(70.9)	136(26.3)	174(33.6)	87(16.8)	121(23.4)	84	270,653
	3분위	174(28.6)	434(71.4)	125(28.8)	138(31.8)	97(22.4)	74(17.1)	84	149,993
	4분위	167(32.1)	353(67.9)	89(25.2)	125(35.4)	73(20.7)	66(18.7)	84	215,793
	5분위	137(34.3)	262(65.7)	63(24.0)	101(38.5)	44(16.8)	54(20.6)	84	192,893
	F(p)	41.428(.000)		46.966(.000)					
지역권	수도권	291(27.4)	771(72.6)	224(29.1)	248(32.2)	146(18.9)	153(19.8)	84	215,793
	충청권	221(30.5)	504(69.5)	156(31.0)	150(29.8)	101(20.0)	97(19.2)	84	183,193
	전라권	146(26.8)	399(73.2)	117(29.3)	134(33.6)	69(17.3)	79(19.8)	84	199,993
	경상권	201(25.9)	574(74.1)	171(29.8)	180(31.4)	100(17.4)	123(21.4)	84	270,653
	F(p)	4.282(.233)		3.643(.933)					
주관적 건강 상태	좋음	332(31.1)	734(68.9)	220(30.0)	271(36.9)	115(15.7)	128(17.4)	84	199,993
	보통	327(25.2)	970(74.8)	272(28.0)	301(31.0)	212(21.9)	185(19.1)	84	215,793
	나쁨	200(26.9)	544(73.1)	176(32.4)	140(25.7)	89(16.4)	139(25.6)	84	270,653
	F(p)	10.581(.005)		36.335(.000)					
장애	예	80(20.9)	303(79.1)	117(38.6)	63(20.8)	54(17.8)	69(22.8)	84	192,893
	아니오	779(28.6)	1,945(71.4)	551(28.3)	649(33.4)	362(18.6)	383(19.7)	84	270,653
	X ² (p)	9.978(.002)		23.748(.000)					
만성 질환	예	571(22.3)	1,984(77.7)	552(27.8)	578(29.1)	409(20.6)	445(22.4)	84	270,653
	아니오	288(52.2)	264(47.8)	116(43.9)	134(50.8)	7(2.7)	7(2.7)	84	199,993
	X ² (p)	201.864(.000)		140.724(.000)					
흡연	예	565(28.9)	1,388(71.1)	407(29.3)	438(31.6)	242(17.4)	301(21.7)	84	192,893
	아니오	294(25.5)	860(74.5)	261(30.3)	274(31.9)	174(20.2)	151(17.6)	84	270,653
	X ² (p)	4.324(.038)		6.949(.074)					
음주	예	663(28.6)	1,659(71.4)	482(29.1)	539(32.5)	313(18.9)	325(19.6)	84	270,653
	아니오	196(25.0)	589(75.0)	186(31.6)	173(29.4)	103(17.5)	127(21.6)	84	225,593
	X ² (p)	3.769(.050)		3.554(.314)					
Total	859(27.6)	2,248(72.4)	668(29.7)	712(31.7)	416(18.5)	452(20.1)	84	270,653	

표 2. 일반의약품 비용

단위: 명(%), 원

변수	무	유	일반의약품 비용				MIN	MAX	
			≤20,000	≤50,000	≤100,000	100,000<			
연령	40세 이하	9(9.3)	88(90.7)	21(23.9)	25(28.4)	20(22.7)	22(25.0)	4,000	630,000
	41-64세	141(11.3)	1,105(88.7)	362(32.8)	325(29.4)	200(18.1)	218(19.7)	1,600	2,718,000
	65세 이상	416(23.6)	1,348(76.4)	414(30.7)	357(26.5)	248(18.4)	329(24.4)	800	1,840,000
	F(p)	13,730(.000)		11,489(.074)					
성별	남	375(17.4)	1,777(82.6)	538(30.3)	514(28.9)	339(19.1)	386(21.7)	800	1,986,180
	여	191(20.0)	764(80.0)	259(33.9)	193(25.3)	129(16.9)	183(24.0)	1,000	2,718,000
	X ² (p)	10,366(.001)		7,397(.050)					
혼인 상태	혼인 유지	334(16.1)	1,737(83.9)	513(29.5)	501(28.8)	340(19.6)	383(22.0)	800	2,718,000
	종결 및 미혼	232(22.4)	804(77.6)	284(35.3)	206(25.6)	128(15.9)	186(23.1)	1,000	1,110,000
	X ² (p)	47,917(.000)		12,195(.007)					
교육 수준	초등	263(23.7)	845(76.3)	268(31.7)	211(25.0)	161(19.1)	205(24.3)	1,000	1,840,000
	중등	108(19.3)	452(80.7)	130(28.8)	125(27.7)	94(20.8)	103(22.8)	800	1,514,000
	고등이상	195(13.6)	1,244(86.4)	399(32.1)	371(29.8)	213(17.1)	261(21.0)	1,000	2,718,000
	F(p)	44,114(.000)		10,637(.100)					
소득 분위	1분위	228(26.9)	621(73.1)	203(32.7)	146(23.5)	107(17.2)	165(26.6)	1,000	1,840,000
	2분위	133(18.2)	598(81.8)	200(33.4)	171(28.6)	108(18.1)	119(19.9)	1,000	776,900
	3분위	86(14.1)	522(85.9)	152(29.1)	166(31.8)	102(19.5)	102(19.5)	1,500	1,060,000
	4분위	65(12.5)	455(87.5)	137(30.1)	124(27.3)	97(21.3)	97(21.3)	1,800	1,514,000
	5분위	54(13.5)	345(86.5)	105(30.4)	100(29.0)	54(15.7)	86(24.9)	800	2,718,000
	F(p)	66,571(.000)		23,809(.022)					
지역권	수도권	166(15.6)	896(84.4)	255(28.5)	241(26.9)	186(20.8)	214(23.9)	1,100	1,986,180
	충청권	133(18.3)	592(81.7)	199(33.6)	158(26.7)	117(19.8)	118(19.9)	800	2,718,000
	전라권	122(22.4)	423(77.6)	147(34.8)	127(30.0)	75(17.7)	74(17.5)	1,000	869,400
	경상권	145(18.7)	630(81.3)	196(31.1)	181(28.7)	90(14.3)	163(25.9)	1,000	1,404,000
	F(p)	11,258(.010)		26,026(.002)					
주관적 건강상태	좋음	183(17.2)	883(82.8)	311(35.2)	253(28.7)	155(17.6)	164(18.6)	1,100	1,060,000
	보통	234(18.0)	1,063(82.0)	327(30.8)	289(27.2)	206(19.4)	241(22.7)	1,000	2,718,000
	나쁨	149(20.0)	595(80.0)	159(26.7)	165(27.7)	107(18.0)	164(27.6)	800	1,404,000
	F(p)	2,451(.294)		22,617(.001)					
장애	예	98(25.6)	285(74.4)	77(27.0)	84(29.5)	51(17.9)	73(25.6)	1,000	1,404,000
	아니오	468(17.2)	2,256(82.8)	720(31.9)	623(27.6)	417(18.5)	496(22.0)	800	2,718,000
	X ² (p)	15,929(.000)		3,784(.286)					
만성 질환	예	523(20.5)	2,032(79.5)	630(31.0)	554(27.3)	375(18.5)	473(23.3)	800	2,718,000
	아니오	43(7.8)	509(92.2)	167(32.8)	153(30.1)	93(18.3)	96(18.9)	1,600	1,060,000
	X ² (p)	48,986(.000)		5,120(.163)					
흡연	예	337(17.3)	1,616(82.7)	474(29.3)	473(29.3)	305(18.9)	364(22.5)	800	1,840,000
	아니오	229(19.8)	925(80.2)	323(34.9)	234(25.3)	163(17.6)	205(22.2)	1,000	2,718,000
	X ² (p)	3,262(.050)		9,727(.021)					
음주	예	389(16.8)	1,933(83.2)	588(30.4)	559(28.9)	364(18.8)	422(21.8)	800	2,718,000
	아니오	177(22.5)	608(77.5)	209(34.4)	148(24.3)	104(17.1)	147(24.2)	1,000	1,404,000
	X ² (p)	13,224(.000)		7,674(.050)					
Total	566(18.2)	2,541(81.8)	797(31.4)	707(27.8)	468(18.4)	569(22.4)	800	2,718,000	

표 3. 한약 및 처방 비용

단위: 명(%), 원

변수	무	유	한약 및 처방 비용			MIN	MAX	
			≤50,000	≤100,000	100,000<			
연령	40세 이하	92(94.8)	5(5.2)	1(20.0)	3(60.0)	1(20.0)	80,000	300,000
	41-64세	1,109(89.0)	137(11.0)	58(42.3)	30(21.9)	49(35.8)	4,000	1,700,000
	65세 이상	1,615(91.6)	149(8.4)	50(33.6)	39(26.2)	60(40.3)	5,000	2,700,000
	F(p)	7.679(.022)		5.775(.217)				
성별	남	1,926(89.5)	226(10.5)	87(38.5)	54(23.9)	85(37.6)	4,000	1,700,000
	여	890(93.2)	65(6.8)	22(33.8)	18(27.7)	25(38.5)	10,000	2,700,000
	X ² (p)	10.642(.001)		.595(.743)				
혼인 상태	혼인 유지	1,847(89.2)	224(10.8)	85(37.9)	55(24.6)	84(37.5)	4,000	1,700,000
	종결 및 미혼	969(93.5)	67(6.5)	24(35.8)	17(25.4)	26(38.8)	10,000	2,700,000
	X ² (p)	15.385(.000)		.099(.951)				
교육 수준	초등	1,026(92.6)	82(7.4)	27(32.9)	21(25.6)	34(41.5)	5,000	2,700,000
	중등	507(90.5)	53(9.5)	23(43.4)	12(22.6)	18(34.0)	7,000	840,000
	고등이상	1,283(89.2)	156(10.8)	59(37.8)	39(25.0)	58(37.2)	4,000	1,700,000
	F(p)	8.735(.013)		1.591(.810)				
소득 분위	1분위	800(94.2)	49(5.8)	15(30.6)	16(32.7)	18(36.7)	10,000	1,200,000
	2분위	656(89.7)	75(10.3)	31(41.3)	16(21.3)	28(37.3)	4,500	2,700,000
	3분위	559(91.9)	49(8.1)	16(32.7)	15(30.6)	18(36.7)	10,000	1,700,000
	4분위	451(86.7)	69(13.3)	24(34.8)	15(21.7)	30(43.5)	5,000	1,104,000
	5분위	350(87.7)	49(12.3)	23(46.9)	10(20.4)	16(32.7)	4,000	1,300,000
	F(p)	28.160(.000)		6.387(.604)				
지역권	수도권	957(90.1)	105(9.9)	35(33.3)	28(26.7)	42(40.0)	4,000	2,700,000
	충청권	665(91.7)	60(8.3)	17(28.3)	15(25.0)	28(46.7)	7,000	1,200,000
	전라권	503(92.3)	42(7.7)	24(57.2)	9(21.4)	9(21.4)	4,500	1,000,000
	경상권	691(89.2)	84(10.8)	33(39.3)	20(23.8)	31(36.9)	5,000	1,050,000
	F(p)	5.103(.164)		10.983(.050)				
주관적 건강 상태	좋음	946(88.7)	120(11.3)	46(38.3)	27(22.5)	47(39.2)	4,000	1,700,000
	보통	1,188(91.6)	109(8.4)	39(35.8)	32(29.4)	38(34.9)	5,000	2,700,000
	나쁨	682(91.7)	62(8.3)	24(38.7)	13(21.0)	25(40.3)	5,000	1,200,000
	F(p)	6.893(.033)		2.084(.720)				
장애	예	347(90.6)	36(9.4)	10(27.8)	13(36.1)	13(36.1)	10,000	1,200,000
	아니오	2,469(90.6)	255(9.4)	99(38.8)	59(23.1)	97(38.0)	4,000	2,700,000
	X ² (p)	.001(.981)		3.205(.201)				
만성 질환	예	2,339(91.5)	216(8.5)	74(34.2)	58(26.9)	84(38.9)	4,000	2,700,000
	아니오	477(86.4)	75(13.6)	35(46.7)	14(18.7)	26(34.6)	4,500	1,200,000
	X ² (p)	14.089(.000)		4.058(.131)				
흡연	예	1,758(90.0)	195(10.0)	73(37.4)	44(22.6)	78(40.0)	4,500	1,700,000
	아니오	1,058(91.7)	96(8.3)	36(37.5)	28(29.2)	32(33.3)	4,000	2,700,000
	X ² (p)	2.371(.124)		1.890(.389)				
음주	예	2,092(90.1)	230(9.9)	89(38.7)	57(24.8)	84(36.5)	4,000	1,700,000
	아니오	724(92.2)	61(7.8)	20(32.8)	15(24.6)	26(42.6)	10,000	2,700,000
	X ² (p)	3.149(.050)		.925(.630)				
Total	2,816(90.6)	291(9.4)	109(37.5)	72(24.7)	110(37.8)	4,000	2,700,000	

표 4. 의약품 지출 비용

단위: 명(%), 원

변수	N	의약품 지출 비용					MIM	Max	
		≤10,000	≤30,000	≤50,000	≤100,000	100,000<			
연령	40세 이하	97	14(14.4)	22(22.7)	14(14.4)	23(23.7)	24(24.7)	84	759,000
	41-64세	1,246	194(15.6)	291(23.4)	195(15.7)	231(18.5)	335(26.9)	84	2,718,000
	65세 이상	1,764	305(17.3)	413(23.4)	260(14.7)	307(17.4)	479(27.2)	84	2,760,093
	F(p)		4,522(.807)						
성별	남	2,152	327(15.2)	495(23.0)	334(15.5)	404(18.8)	592(27.5)	84	2,469,163
	여	955	186(19.5)	231(24.2)	135(14.1)	157(16.4)	246(25.8)	84	2,760,093
	X ² (p)		11,327(.023)						
혼인 상태	혼인 유지	2,071	291(14.1)	475(22.9)	314(15.2)	405(19.6)	586(28.3)	84	2,718,000
	종결 및 미혼	1,036	222(21.4)	251(24.2)	155(15.0)	156(15.1)	252(24.3)	84	2,760,093
	X ² (p)		35,050(.000)						
교육 수준	초등	1,108	202(18.2)	276(24.9)	147(13.3)	195(17.6)	288(26.0)	84	2,760,093
	중등	560	85(15.2)	123(22.0)	85(15.2)	111(19.8)	156(27.9)	84	1,660,084
	고등이상	1,439	226(15.7)	327(22.7)	237(16.5)	255(17.7)	394(27.4)	84	2,718,000
	F(p)		11,094(.196)						
소득 분위	1분위	849	178(21.0)	211(24.9)	118(13.9)	129(15.2)	213(25.1)	84	2,469,163
	2분위	731	131(17.9)	150(20.5)	125(17.1)	139(19.0)	186(25.4)	84	2,760,093
	3분위	608	78(12.8)	167(27.5)	93(15.3)	119(19.6)	151(24.8)	84	1,968,100
	4분위	520	63(12.1)	123(23.7)	67(12.9)	108(20.8)	159(30.6)	1,193	1,667,993
	5분위	399	63(15.8)	75(18.8)	66(16.5)	66(16.5)	129(32.3)	84	2,718,000
	F(p)		55,744(.000)						
지역권	수도권	1,062	152(14.3)	239(22.5)	146(13.7)	214(20.2)	311(29.3)	84	2,760,093
	충청권	725	124(17.1)	174(24.0)	108(14.9)	139(19.2)	180(24.8)	84	2,718,000
	전라권	545	106(19.4)	144(26.4)	82(15.0)	99(18.2)	114(20.9)	84	1,505,073
	경상권	775	131(16.9)	169(21.8)	133(17.2)	109(14.1)	233(30.1)	84	1,510,000
	F(p)		36,541(.000)						
주관적 건강 상태	좋음	1,066	188(17.6)	266(25.0)	168(15.8)	181(17.0)	263(24.7)	84	1,968,100
	보통	1,297	199(15.3)	313(24.1)	199(15.3)	246(19.0)	340(26.2)	84	2,760,093
	나쁨	744	126(16.9)	147(19.8)	102(13.7)	134(18.0)	235(31.6)	84	2,469,163
	F(p)		18,422(.018)						
장애	예	383	79(20.6)	78(20.4)	50(13.1)	67(17.5)	109(28.5)	84	2,469,163
	아니오	2,724	434(15.9)	648(23.8)	419(15.4)	494(18.1)	729(26.8)	84	2,760,093
	X ² (p)		7,805(.099)						
만성 질환	예	2,555	423(16.6)	597(23.4)	376(14.7)	460(18.0)	699(27.4)	84	2,760,093
	아니오	552	90(16.3)	129(23.4)	93(16.8)	101(18.3)	139(25.2)	84	1,667,993
	X ² (p)		2,203(.698)						
흡연	예	1,953	292(15.0)	451(23.1)	306(15.7)	362(18.5)	542(27.8)	84	2,469,163
	아니오	1,154	221(19.2)	275(23.8)	163(14.1)	199(17.2)	296(25.6)	84	2,760,093
	X ² (p)		10,920(.027)						
음주	예	2,322	352(15.2)	545(23.5)	370(15.9)	432(18.6)	623(26.8)	84	2,718,000
	아니오	785	161(20.5)	181(23.1)	99(12.6)	129(16.4)	215(27.4)	84	2,760,093
	X ² (p)		16,106(.003)						
Total			513(16.5)	726(23.4)	469(15.1)	561(18.1)	838(27.0)	84	2,760,093

표 5. 의약품 지출 비용에 미치는 요인

단위: 명(%), 원

변수		≤10,000			≤30,000		
		Exp(B)	95% CI	p	Exp(B)	95% CI	p
연령	40세 이하	1			1		
	41-64세	.871	.462-1.645	.671	1.034	.606-1.763	.903
	65세 이상	1.064	.829-1.366	.627	1.057	.852-1.311	.617
성별	남	1			1		
	여	1.465	1.002-2.412	.049	.988	.704-1.386	.945
혼인 상태	혼인 유지	1			1		
	종결 및 미혼	.563	.416-.764	.000	.933	.705-1.234	.627
교육 수준	초등	1			1		
	중등	.834	.633-1.098	.196	1.179	.928-1.498	.177
	고등이상	.835	.624-1.116	.222	.984	.766-1.263	.898
소득 분위	1분위	1			1		
	2분위	1.331	.927-1.909	.121	1.455	1.044-2.028	.027
	3분위	1.167	.827-1.648	.379	1.117	.811-1.540	.498
	4분위	.798	.512-1.094	.225	1.650	1.208-2.253	.002
	5분위	.748	.512-1.094	.134	1.333	.964-1.843	.082
지역권	수도권	1			1		
	충청권	.851	.656-1.105	.226	1.059	.844-1.329	.620
	전라권	1.054	.802-1.385	.706	1.138	.892-1.451	.299
	경상권	1.137	.850-1.520	.386	1.288	.993-1.671	.057
주관적 건강 상태	좋음	1			1		
	보통	1.248	.952-1.635	.109	1.388	1.086-1.772	.009
	나쁨	1.059	.818-1.372	.662	1.334	1.058-1.682	.015
장애	예	1			1		
	아니오	1.299	.978-1.726	.071	.823	.625-1.084	.165
만성 질환	예	1			1		
	아니오	.886	.664-1.181	.409	1.027	.802-1.315	.830
흡연	예	1			1		
	아니오	.827	.625-1.094	.182	1.025	.801-1.313	.842
음주	예	1			1		
	아니오	.807	.637-1.024	.078	1.059	.851-1.317	.606

1.394배 높았고, 소득분위는 '1분위'보다 '2분위'는 0.640배, '3분위'는 0.689배, '4분위'는 0.671배, '5분위'는 0.918배 낮았다. 지역권은 '수도권'보다 '충청권'은 0.962배, '전라권'은 0.760배, '경상권'은 0.622배 낮았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 좋음'보다 '보통'이 0.686배, '나쁨'이 0.717배 낮았다[표 5].

IV.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한국의료패널조사(Korea Health Panel Study)의 2014년 한국의료패널 원자료(Raw Data)의 데이터를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의약품 지출 비용을 알아보기 위해 처방전 약제비, 일반의약품 약제비, 한약 및 첩약 약제비 이용 경험이 있는 자 3,107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행태를 분석하여 그에 따른 의약품 지출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미충족 또는 과부담 의료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마련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표 5. 의약품 지출 비용에 미치는 요인(continue)

단위: 명(%), 원

변수		≤50,000			≤100,000			100,000<		
		Exp(B)	95% CI	p	Exp(B)	95% CI	p	Exp(B)	95% CI	p
연령	40세 이하	1			1			1		
	41-64세	.720	.383-1,356	.310	1,647	.959-2,827	.070	.865	.515-1,452	.583
	65세 이상	.902	.700-1,161	.423	1,077	.852-1,361	.537	.922	.751-1,132	.436
성별	남	1			1			1		
	여	1,059	.710-1,579	.780	.873	.601-1,268	.476	.809	.583-1,112	.205
혼인 상태	혼인 유지	1			1			1		
	종결 및 미혼	.805	.583-1,111	.187	1,525	1,110-2,094	.009	1,394	1,061-1,832	.017
교육 수준	초등	1			1			1		
	중등	.735	.553-.978	.035	1,278	.981-1,665	.069	.989	.786-1,245	.928
	고등이상	.874	.656-1,164	.357	1,274	.978-1,661	.073	1,039	.822-1,312	.750
소득 분위	1분위	1			1			1		
	2분위	.926	.638-1,344	.686	.956	.666-1,374	.809	.640	.475-.863	.003
	3분위	1,118	.794-1,573	.523	1,168	.835-1,635	.364	.689	.520-.913	.009
	4분위	.934	.659-1,325	.703	1,219	.871-1,706	.248	.671	.505-.892	.006
	5분위	.757	.523-1,096	.141	1,296	.922-1,823	.136	.918	.692-1,219	.555
지역권	수도권	1			1			1		
	충청권	.730	.563-.947	.018	1,523	1,179-1,967	.001	.962	.782-1,184	.716
	전라권	.839	.635-1,109	2.18	1,407	1,067-1,856	.015	.760	.603-.957	.020
	경상권	.863	.636-1,171	.345	1,370	1,013-1,854	.041	.622	.479-.809	.000
주관적 건강 상태	좋음	1			1			1		
	보통	1,095	.822-1,460	.533	.848	.650-1,106	.224	.686	.547-.861	.001
	나쁨	1,068	.814-1,400	.637	.999	.781-1,278	.996	.717	.581-.885	.002
장애	예	1			1			1		
	아니오	.860	.620-1,195	.370	1,000	.746-1,342	.999	1,066	.830-1,369	.614
만성 질환	예	1			1			1		
	아니오	.905	.681-1,201	.489	1,044	.796-1,371	.755	1,098	.863-1,396	.447
흡연	예	1			1			1		
	아니오	1,056	.787-1,418	.714	.970	.741-1,271	.828	1,104	.871-1,398	.414
음주	예	1			1			1		
	아니오	1,293	.990-1,688	.059	1,056	.828-1,348	.660	.909	.739-1,119	.368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적 의약품별 지출비용은 다음과 같다. 처방전 비용은 72.4%가 지출 경험이 있었으며, 최소 비용이 84원, 최대 비용이 270,653원 이었고, '3천원 이상~1만원 이하'가 31.7%로 가장 많았다. 처방전 비용은 연령이 높을수록, 남자가, 혼인 종결 및 미혼일수록,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장애와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서, 음주와 흡연은 하지 않는 경우에서 높

게 나타났다. 손수인 등[6]의 연구 결과 의료비 지출 관련 요인은 사회경제적 상태, 취업상태, 교육수준, 장애 유무, 만성질환 유무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는 경제적 부담이 적을수록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위한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Neilson et al.[10]은 교육수준은 의약품 사용과 의료적 필요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의약품 사용도 많아진다는 결과로 본 연구를 지지하였다. 이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의료적 정보 활용도를 높여 질병에 대한 사전

예방으로 의약품 발생 비용을 줄인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 의약품 비용은 82.8%가 지출 경험이 있었고, 최소 비용이 800원 이었고, 최대 비용이 2,718,000원 이었고, '2만원 이하'가 31.4%로 가장 많았다.

일반적 의약품 비용은 연령이 낮을수록, 남자가, 혼인 유지 중이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장애와 만성질환이 없을수록, 음주와 흡연을 하는 경우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은 낮은 연령층에서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사람들은 의료서비스의 필요 시점 시 시간적 제약 등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통한 일반 의약품을 활용하여 스스로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약 및 첩약 비용은 90.6%가 지출 경험이 없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남자가, 혼인 유지 중이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만성질환이 없을수록, 음주와 흡연을 하는 경우에서 높게 나타났다. 손수인 등[6]의 연구 결과 의료비 지출 관련 요인은 사회경제적 상태, 취업상태, 교육수준, 장애 유무, 만성질환 유무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정연·허순임[3]의 연구는 의료비 지출액은 고소득층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미리 건강을 관리하거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Neilson et al.[10]은 교육수준은 의약품 사용과 의료적 필요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의약품 사용도 많아진다는 결과로 본 연구를 지지하였다. 이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의료적 정보 활용도를 높여 질병에 대한 사전 예방으로 의약품 발생 비용을 줄인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의약품 지출 총 비용은 '10만원 초과'가 27.0%로 가장 많았고, '3만원 초과~5만원 이하'가 15.1%로 가장 적었다. 최소 비용은 84원 이었고, 최대 비용은 2,760,093원 이었다.

의약품 지출 총 비용은 여자보다 남자가 높았고, 혼인 유지 중이며,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장애는 없을수록, 만성질환은 있을수록, 흡연과 음주를 하는 경우에서 높게 나타났다.

신정우·정형선[1]의 연구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의료

비 지출 비용이 높아,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신체적 노화에 따른 질병의 발병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유리[11]는 노인층이 밀집한 전라도가 관내 의료기관 이용률이 낮았다고 분석하여, 전라권의 의약품 지출 비용이 낮았다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는 지역권에 따른 의료의 접근성·편의성 등의 차이가 큰 것으로 사료된다. 신현웅 등[12]은 우리나라 의료안전망이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지만 의료 문제를 완전히 해소해 주지는 못하고 있어, 이로 인한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의료로 인해 고통 받는 계층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도시와 농·어촌 지역간의 차이 외에도 지역권에 따른 의료 사각지대와 미충족 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으로 지역권에 따라 의약품 지출 비용이 차이가 난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셋째, 의약품 지출비용에 미치는 요인은 성별, 혼인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소득분위, 지역권 이었다.

여자보다 남자일수록, 혼인종결이나 미혼인 상태가,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수도권일수록 의약품 지출 비용이 높게 나타났다.

조자현[13]은 일반 의약품 지출은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의료보장형태, 경제활동유무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김윤정·황병덕[14]은 권역별 건강수준과 의약품 지출 비용에 연령, 혼인 상태, 주관적 건강상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는 노년층이 되기 전 질병관리, 흡연 및 음주 관리 등 개인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고, 혼인 상태 유지로 가족의 건강상태에 관여함으로써 조기 치료나 사전 예방을 시행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의약품 지출 비용은 성별, 혼인 상태, 교육수준, 소득분위,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혼인 종결 및 미혼일수록 의약품 지출비용이 높게 나타나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해 볼 때 이들 스스로 운동, 규칙적인 식단관리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하여 스스로의 건강을 관리해야한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일반 의약품이나 한약 및 첩약 비용의 발생이 높게 나타나 의료기관과 정부에

서는 국민들이 일반 의약품과 한약 및 첩약의 올바른 복용법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할 것 이다.

또한 수도권일수록 의약품 지출 비용이 높게 나타나 지역권에 따른 의약품 지출 비용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바람직한 보건의료체계를 확립시킴으로써, 보편적 의료보장의 목표의 최적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미충족 의료 요인과 소득에 따른 과부담 의료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의약품 지출 비용을 세분화하여 일반적 특성과 건강행태에 따라 분석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첫째, 대상자의 시계열적 분석을 통한 변화추이를 반영하지 못하였고, 둘째, 2014년 한국의료패널 조사 대상자 중 의약품 지출 비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셋째, 의약품 지출 비용에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어, 추후 건강상태에 따른 의료비 지출비용 분석 및 과부담 의료비에 관한 시계열분석을 시행해볼 것을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 [1] 신정우, 정형선, “가계 의료비 지출의 결정 요인 분석,”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13권, 제2호, pp.26-35, 2007.
- [2] 정영호, 한국의료패널로 본 의료이용 및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 보건사회연구원, 2011.
- [3] 정연, 허순임, “가구의 경제수준에 따른 의료비 부담과 부문별 비용의 차이,”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18권, 제4호, pp.22-23, 2012.
- [4] 이혜재, 가구 과부담의료비의 결정요인과 빈곤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5] 김수정, 허순임, “우리나라 가구 의료비부담과 미충족 의료 현황: 의료보장 형태와 경제적 수준을 중심으로,”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17권, 제1호, pp.48-49, 2011.
- [6] 손수인, 신영진, 김창엽, 저소득층의 과부담의료

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사회연구원, 2010.

- [7] 김창순, 가계지출 보건의료비의 구조변화와 결정 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8] 허순임, 최숙자,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이용,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2006.
- [9] 이혜재, 이태진, “미충족의료와 비급여진료비가 과부담의료비 발생에 미치는 영향,”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21권, 제3호, 2015.
- [10] M. W. Nielsen, J. Gundgaard, and E. H. Hansen, N. K. Rasmussen, *Use of Six Main Drugs Therapeutic Groups Across Educational Groups: Self-Reported Survey and Prescription Records*, J Clin Pharm Ther, 2005.
- [11] <https://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37859>, 2017.12.31.
- [12] 신현웅, 신영석, 황도경, 윤필경, 의료비 과부담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원, 2010.
- [13] 조자현, 한국의료패널을 이용한 일반의약품 지출 관련 요인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14] 김윤정, 황병덕, “국의료패널로 본 소득분위에 따른 권역별 건강수준과 의약품 지출 비용,” 보건 의료산업학회, 제11권, 제1호, pp.117-130, 2017.

저 자 소 개

김 윤 정(Yun-Jeong Kim)

정회원



- 2015년 2월 : 부산가톨릭대학교 병원경영학과(보건학 석사)
 - 2017년 2월 : 부산가톨릭대학교 병원경영학과(보건학 박사)
 - 2002년 4월 ~ 현재 : 정우의료재단 프라우메디병원 기획홍보실
- <관심분야> : 병원경영학, 병원마케팅, 보건관리학

황 병 덕(Byung-Deog Hwang)

정회원



- 2002년 2월 : 경북대학교 보건학
과(보건학 박사)
- 1999년 3월 ~ 현재 : 부산가톨릭
대학교 병원경영학과 교수

<관심분야> : 보건관리학, 병원경영분석, 보건의료법규